

미주문학(07. 겨울호)의 시

정호승

(시인)

시는 삶의 향기입니다

다시 해가 바뀌어 2008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이렇게 제 속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는 이 시간의 속도에 편승하거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이 물리적 시간의 속도 속에서 제 자신만의 절대적 속도를 지닐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시를 쓰는 일, 시를 읽는 일에 마음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주문학』 겨울호를 읽고 나서 제가 쓰는 이 독후감은 어디까지나 저의 선호도와 편견에 의해 썩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왜 미주문학인가’ 하는 데에 관점을 두고



시인. 1950년 대구 출생. 경희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 졸업.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동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에 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이 당선돼 등단.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포옹』, 시선집 『내가 사랑하는 사람』 등 다수.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 수상.

있습니다. 왜 이민자의 땅 미국에서도 모국어로 시를 쓰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이 글을 쓰는 동안 제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호에서도 제 눈길을 끈 것은 역시 이민자로서의 삶에서 우리나라 담백한 시들입니다. 『미주문학』에 게재된 시들 중 그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는 작품이 없었습니다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고현혜의 「나는 나의 어머니가 되어」는 새삼 어머니의 위대한 존재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생명의 모태이자 존재의 전부인 어머니는 우리에게 사랑과 감동 그 자체입니다. 특히 이민자에게 있어 어머니는 더욱더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에서 화자는 아이들의 밥을 해주는 자신의 모습에서 문득 어머니를 떠올리고 기다립니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나서 비로소 ‘나의 어머니’를 발견하게 된 마음의 한 순간을 간절하게 노래합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되어/내 부엌에서/나의 밥상을 차린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는 일상적이고도 현실적인 어머니와 또 다른 어머니, 즉 이제는 일상 속에는 만날 수 없는 화자 자신의 어머니와 일치를 이룹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되어/아직 어린 내 영혼을 먹인다’에서는 어머니가 됨으로써 비로소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국희의 「소포」도 이민자로서 모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에 나타난 어머니는 떠나온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입니다. 고향의 어머니가 화자에게 부친, ‘내 자식이 목을 음식’이 담긴 소포를 열자 김, 파래, 멸치, 미역 등 고향의 먹거리가 ‘줄어드는 몸으로 앓았다가/기지개를 겁니다’. 화자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바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통해 ‘내 새끼!/몸성히 잘 있었냐고……/얼마나 살기가 힘드냐고……’ 하는 어머니의 다정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시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시인은 어머니가 부친 소포에서 펼쳐진 김, 멸치, 미역 등에서 어머니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시를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시에서 화자는 어머니가 보낸 소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비록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씀으로 표현돼 있지만 실은 화자의 이민생활의 힘듦과 고단함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며 ‘얼마나 살기가 힘드냐고……’라는 구절에 오랫동안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평이하고 상식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속엔 상식을 뛰어넘는 소박한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시가 거창하고 위대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감동에서 진실되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의 어머니가 보낸 소포를 뜯으며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귀를 지녔다면 누구나 다 시인의 마음을 지닌 것입니다.

송정룡의 「천륜」 또한 모성의 영원성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에 나타난 아흔여섯 되신 어머니는 2년 동안 치매를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매를 앓는 동안 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은 어머니’였습니다. ‘변을 가려주는 아들딸을 기억하지 못하셨으며’ ‘손자 손녀가 손을 잡으면/누구세요? 몸만 움츠린’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잊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지 오십 년이 넘은’ 당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있어?/연신 찾으시는 것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인 또한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은 어머니가 당신의 어머니를 찾는 모습을 보고 시를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란 무엇일까요. 아흔여섯 임종 직전의 어머니가 당신의 어머니를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시의 마지막 한 구절 ‘어머니의 길은 하

나였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어머니의 길은 바로 희생과 사랑의 길일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고현혜, 정국희, 송정룡 시인이 모성을 원천으로 한 시를 썼다면, 김모수의 「누가 누구를 구경하느냐」와 이용애의 「별이 빛난 밤」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한 삶의 기쁨이 바탕이 되어 써진 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모수의 시에는 '손자놈 덕에 30년 만에/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갔다가' '짐승이 사람 되고/사람이 짐승 된', 위상이 뒤바뀐 광경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꽤나 한 놈이/높은 대나무 가지에 걸터앉아/야유(揶揄)한 줄기 멋지게 갈기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누가 누구를 구경하느냐'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성찰의 시간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손자 손에 이끌려 구경 온 꽤나 앞에서 문득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이제는 할머니가 된 '나'를 객관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용애의 시에서는 손녀에 대한 할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네 살짜리 손녀 레이첼과 함께 별뿔별을 보기 위해 '유성(流星)이 제일 잘 보인다는/팔월 한 여름밤/요세미티 밸리 풀밭에/담요를 깔고 누워 유성을 기다리는' 시인의 모습이 참으로 행복해 보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행복함 속에서 '오늘밤엔 유성보다 빛나는 새 별이/하나 떠올랐구나/오래도록 그 자리에서/반짝이기를' 소망합니다. '유성보다 빛나는 새 별'이란 누구일까요. 바로 손녀 레이첼이 아닐까요. 손녀에 대한 할머니의 한없는 사랑이 읽는 이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에서 '내게도 획 보여진 빛줄기 하나가/짧게 선을 긋고 사라진다'라는 구절에 주목했습니다. 시인은 한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별뿔별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별뿔별과 같은 자신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한순간 기뻐하기도 하고

쓸쓸해 하기도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시인은 노년에 들어 이제서야 자신의 빛줄기 하나 발견함으로써 기쁘기 한량없지만, 그 빛줄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별똥별이므로 또한 쓸쓸하기 그지없었었을 것입니다.

김모수, 이용애의 시가 손자 손녀들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한 시라면, 석정희의 「섬에 홀로 남게 되는 것은2」, 윤석훈의 「손바닥」, 장태숙의 「우회(迂廻)」 등은 이민생활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물로 은유화해서 그 내면의 풍경을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정희의 시는 북극의 얼음산을 통해 이민생활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강도 높게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연에서는 북극의 빙하 조각을 외로움의 가장 극명한 상태로 설정한 후, 그 ‘북극의 얼음산들이/천둥 같은 소리로/무너지고 갈라지는 일 아니어도/한 덩이 조각 땅/외로운 섬에 홀로 남게 되는/그런 일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로운 섬’이란 바로 시인 자신의 현재적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일’이란 바로 현재적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스러움, 외로움, 절망감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연에서는 ‘둥둥 떠가는 이 얼음 조각 섬에/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구원선은/보이지 않았습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구원선’으로 표현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재적 삶에서 오는 절망감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마지막 연에서 ‘푸른 하늘을 향한 초록 산정들이/힘있게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어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훈은 ‘육조 모서리에 붙박혀 있는 거미’를 보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육조에 ‘물이 차오르자 서툰 탈출 시도하는데/육

조의 벽이 미끄러워 나뒹군다/수십 번 반복되는 노력에도 절벽을 오르지 못하자/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미의 생사기로에 선 절박한 모습에서 시인은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거미를 위해 '두루마리 화장지를 둘둘 감아 잘라/생명의 두레박처럼 그에게 풀어주어' '세상 밖으로 길을 내주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거미가 '다시 옥조에 빠지자/화장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려다가/뒤돌아서서 손바닥을 물속으로 집어넣어' 다시 살려줍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해 한없는 존중과 존엄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따스한 손길이 필요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투영시킨 것인지도 모릅니다.

장태숙의 시 또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는 수평의 덩굴손'을 통해 스스로 강한 삶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덩굴손은 아무리 높고 험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번어 오릅니다. 시의 제목처럼 비록 '우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오르고 싶은 곳까지 오르고 가고 싶은 곳까지 가고 맙니다. 이 시의 첫 연 '살아야 했다/고양이 등처럼 등글게 말아 숨죽여 번으면/경계의 끝에 걸리는 팽팽한 축수/인간힘으로 목숨의 끈 움켜쥔다'에서 삶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드러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인은 덩굴손을 보고 비로소 이민자로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덩굴손의 우회는 결국 우회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덩굴손은 '깊은 숨 몰아쉬며 천천히/눈치 채지 않게/은밀히' 희망을 향해 전진합니다.

시는 삶의 향기입니다. 향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향기가 없는 게 아니듯 우리가 살아갈 힘을 한때 잃는다고 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내 삶의 향기를 스스로 맡고 멀리 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쓴 시의 향기가 지금 온 지구 구석구석에 가득합니다.

미주문학(07. 겨울호)의 산문

임현영

(문학평론가)

1. 소설 / 디아스포라 시대의 재미동포 소설

1) 영혼의 유랑자 군상

디아스포라(Diaspora)란 그리스어의 ‘분산 또는 이산’이란 단어에서 유래했으나, 유대인들이 조국을 잃고 타국으로 유랑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실체적 개념으로 자리잡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노마드(Nomade, wandering)시대를 맞아 문화적 특성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기의 땅(조국)에서 유배당했거나(피식민지인들은 자신의 땅에 살면서도 정체성이 없기에 유배자나 마찬가지), 추방당한 자들(침략당한 조국에서 쫓겨난 망명자 또는 이민의 경우)도 포함하는 이 술어는 21세기에



문학평론가. 중앙대학 국문과 겸임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1967년 『현대문학』 평론으로 등단. 문학평론 주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대표 저서로는 『한국근대문학 사상사』, 『분단시대 문학』, 『민족의 상황과 문학 사상』, 『한국근대 비평사의 쟁점』 등이 있다.
www.yimpy.pe.kr

접어들면서 그 뜻이 더 확대 심화되어 문화예술의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제국주의-피식민지적 세계 질서의 편제 속에서 고난 받던 '소수민족'의 경우에 국한해서 사용했던 '디아스포라 문화'가 이제는 '수평적인 대등관계의 이민자'의 문화로 변모했다. 미주 이민 1세대들이 전자의 경우라면 2세대나 1960년대 이후의 이주자들은 후자에 속한다. 비단 재미 한국인만이 아니라 미주의 흑인이나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모든 이주민들이 이제는 제국주의-식민지의 연속관계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소수민족'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백인 지배사회에서 깊은 문화적인 갈등과 편차가 없는 바 아니지만 적어도 제국주의적 지배-피지배관계 시대의 가치관으로는 오늘의 미국적인 다민족 국가의 문화현상은 이해할 수 없도록 변해버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구 제국주의 국가)의 주류문화가 '백인 지배'에서 '디아스포라 문화'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는 워낙 다민족국가인데도 앵글로 색슨의 백인문화 주류에서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문학(유태인, 중국인 등등)들이 미국문학의 변두리에서 주류로 뛰어들어 큰 흐름을 형성해가고 있다.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에도 옛 피식민지의 소수민족 출신 작가나, 설사 백인일지라도 구 식민지에서 태어나 피식민지적 체험을 가진 문학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요 문학상 수상자의 상당수가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오늘의 세계문학을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부르도록 해준다. 미주한국인만 해도 영어로 쓴 소설이 미국의 주류문학으로 편입되어 높이 평가받는 작가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현상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왜 이렇게 서두가 길어졌을까. 미주문학의 비중이 단순한 해외동

포문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문학을 보다 풍요롭게 해 주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중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이다. 지난 시절에는 단순한 ‘해외동포문학’이었으나 이제는 ‘한국적 디아스포라 문학’의 주역이 곧 해외동포문학임을 깨닫는 데서 미주문학은 새롭게 재평가 받아야 할 때가 온것이다. 모국 문단의 흐름을 결눈질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도리어 미주동포문학이 모국 문학의 주류를 바뀌어나가는 시대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 가장 큰 추동 요인은 미주동포 작가들이 지닌 개방성과 열린사회에서의 광역성(廣域性) 체험, 다양한 사회에서의 다채로운 갈등 구조, 서사극적인 요소가 넘치는 소재의 풍요로움 등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소설이 불륜의 범람 풍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비하면 재미동포소설은 ‘디아스포라적 자기 존재’에 대한 자의식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미국은 낙원이라는 유토피아 의식에서 꿈을 깬 지도 오래인지라 디아스포라적 삶이 곧 재미동포의 원점임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잠재의식으로 지닌 생의 명에가 되어있을 것이다.

2) 이동휘 「데스 밸리의 꽃」

“폭이 4-12마일, 길이가 남북으로 120마일. 총 5천 7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다 “데스 벨리여 안녕!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주고 간다”고 외친 “40대 중반의 여인으로 지성미”가 있는 노수현은 한국소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중년부인상의 전형이다. 대학 시절 “남자의 ‘홍부가’ 소리에 그만 반”했으나 그 남자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 그녀는 “자신이 배운 것(미술)을 한번 성취해보지 못하고 부모의 등쌀에 결혼해 두 아이를 키워 대학에 보내고 나니 생활이 허전”해져 “다른 등지로 날아

간 새 한 마리(에인 강태호)를 다시 잡아 볼까하여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아”야 하는 미국 여행길에 올랐던 것. 그러나 노수현은 “머리칼은 반쯤 남았고, 빗갈마저 늦가을 배추밭에 내리는 하얀 서리갈이 변화된 모습, 배는 임신한 여인처럼 하고 있는 강태호를 보는 순간 저의 그리움은 다 소진되어 버렸”다는 그녀.

옛 여인의 등장에 놀란 강태호의 아내는 남편을 아예 노수현과 밀착 못하게 그녀의 여행 안내를 작가 지망생 윤기호에게 맡겼는데 그가 바로 소설의 화자역을 맡는다. 이런 상황 설정이면 아무리 둔감한 독자라도 자동차로 몇 밤을 함께 보내는 여로에서 찼한 정사장면을 상상할 수 있으리라. 더구나 아슬아슬한 분위기들이 연이어지면서 오히려 독자의 입장에서 이쯤 되면 저절로 섹스 장면으로 들어가고 당연시할 만하건만 작가는 시치미 뚝 떼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인생의 멋과 예술을 사랑하는 연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그녀를 꼭 안아 주었다”고 맺는다.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드는 불륜소설과 달리 여자는 그림을, 남자는 글을 쓰도록 만든 남녀의 사랑의 해후임을 부각시키려는 게 작가의 의도인 셈이다.

어쨌서 이 둘은 국내 소설의 흔한 예처럼 육체적인 환락에 함몰되지 않고 영혼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인간상으로 부조(浮彫)되었을까. 바로 디아스포라적 인간상이기 때문이다. 즉 노수현은 한국에 살면서도 정신적인 디아스포라였고, 윤기호는 미국적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디아스포라였기에 정체성 찾기가 절박했고 그게 육체적인 탐닉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존재론적인 회의에 빠져 있게 했던 것이다.

소설적 구성으로는 수현의 내면적인 심리 묘사와 변모 원인의 추적이 부족하고, 기호의 인물 설정이 너무 관념적이라는 등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한국소설이 지닌 상투성을 벗어났다는 점이 돋보인다.

3) 임영록 『카스트라토』

카스트라토(Castrato)란 라틴어 거세하다(Castrare)에서 유래한 말로 변성기 전의 소년을 거세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소프라노나 알토 성역(聲域)을 지닌 걸 뜻한다. 이 작품은 바로 디아스포라적인 숙명론을 벗어날 수 없는 재미 동포관 ‘인간의 굴레’를 느끼게 해준다.

철원이 고향인 김정식은 군인인 “아버지로 인해 우리 가족은 셀 수 없을 만큼의 짐을 싸야 했다.” “80년대 신군부의 집권으로 반대편에 섰던 군인들은 줄줄이 옷을 벗”게 될 때 아버지 역시 옷을 벗고 온 가족이 시애틀 공항에 내린다. 디아스포라이자 카스트라토가 된 셈이다. 초등 3년생이었던 김정식은 제이슨 김으로 개명, 모든 면에서 백인화(白人化)에 진력하여 “위장된 군사기지” (중요한 정부기관)에 취업, “세계 각지에 흩어진 미군 기지를 위한” 각종 설계도를 그리는 일을 맡는다. 도미 14·5년만에 귀국하여 한국인 아내(김미숙)를 얻는다. 부부는 딸 제니퍼와 함께 미국에서 전형적인 중산층 수준의 나날(지극히 건조한 도식화된 생활)을 보내던 중 우연히 사이월드를 통하여 아내의 불륜 혐의 꼬투리를 잡게 된다. 이성적인 존재인 주인공은 “아내도 심각한 충돌의 와중에 해소의 상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기실 너무나 당연히 그녀 역시 디아스포라이긴 마찬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혀보지만 여전히 쓰라린 배신감은 남는다. 이들 부부는 어떻게 될까? 작가는 그 해결책을 명백히 제시하지 않는다.

작가는 제이슨 김의 직업을 통하여 군산복합구조의 고도로 발전된 현대 미국 사회의 심층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카스트라토 당한 디아스포라적 인간상임을 보여준다. 이사만 다녔던 한국

을 떠났지만 정작 미국에서의 삶이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눈이 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곳에서 제이슨 킴은 한국인 유학생과 어울려 사고나 치는 형과는 반대로 오로지 “백인아이들과 어울렸”고, “여자친구도 백인만을 고집”했는데도, 정작 더 세월이 흐르고 보니 형은 미국화 되어 버렸고 제이슨은 여전히 어정쩡한 디아스포라로 남게 되었다. 그렇다고 형이 디아스포라가 아닌 것도 아니고, 제이슨의 직장 동료인 오클라호마 출신 노랑머리나 코네티컷 고향인 똥보도 디아스포라적이긴 마찬가지다.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틈틈이 삼입시킨 점이나 인물들을 대칭적으로 설정해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기교 등등 탁월한 장점이 많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웬지 미완성으로 끝나버린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만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갖춘 작가라면 이 작품은 중편으로 늘여야 소화가 가능한 소재다. 아마 국내 작가라면 장편으로 활용했을 법한 귀중한 주제와 소재들이다.

4) 한만선 「루씨언 벨리」

“LA에서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15번 프리웨이로 한참 동안 차를 몰고 가노라면 어느 한 곳에 빅토리아란 도시를 만나게 된다. 거기서 내려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애플래퍼가 나오고 거기를 지나면 인구 5천의 루씨언 벨리라는 조그만 마을이 하나 나타난다.” 바로 이 소설의 무대로 화자이자 주인공인 ‘나’가 살고있는 곳이다.

‘나’는 모국 논산훈련소 시절에 기독교 한 교단의 가르침에 따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입대는 해야 하지만 살인무기인 총을 쥐는 것은 종교적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집총훈련을 거부”한 죄로 투옥된 경력이 있다. 이내 “유독 총만 들

지 않겠다고 고집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양심을 거스르는 일”로 여겨져 ‘나’는 원대복귀, 이후 온갖 총과 대포부대까지 거쳐 제대, 도미했으나 그때 영창에서 만났던 한 사나이는 끝까지 집총을 거부하여 장기수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루췌언 벨리 ‘나’의 한 블록 건너 살고 있다.

이렇게 상황 설정이 되면 눈치 빠른 독자는 아, 노경에 접어든 두 사나이의 과거사 회상록이겠구나 추리하겠지만 정작 이 소설은 엉뚱하게도 ‘나’의 “용맹스런 진돗개” 릴리(암컷)와 맥스(수컷)에 초점을 맞춰버린다. 맥스가 용맹스러운데다 영리하다면 릴리는 밍상인데 고양이까지 물어 죽이는 사태에 이르자 먼 곳에다 내다 버리게 되는데, 짝이 사라지자 맥스가 가출, 행방불명이 되어버린다. 맥스를 찾아 헤맸으나 허탕을 치고 허망해져 있는데 두어 달이나 지난 어느 날 릴리가 난데없이 귀가한다.

왜 느닷없는 게 이야기일까. 바로 루췌언 교회의 반목하는 신도 두 파를 빗댄 것이다. 한 파는 예의 그 장기수 장로 지지자(맥스로 상징)들로 목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목사 지지파(릴리)이다. 목사는 세속적인 탐욕에 눈 먼 자로 당연히 장기수 쪽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반대파들이 교회엘 나가지 않자 목사는 대오 각성하여 좋은 목사로 환골탈태했다는 결말은 마리 내다 버린 릴리가 온갖 고난을 이기고 귀가한 것과 닮았다.

「카스트리토」처럼 중편이나 장편감으로도 손색이 없는 풍성한 정보와 소재가 넘쳐나는데 소설적 구성이나 긴장미가 아쉽다. 앞부분은 마치 수필처럼 진행되다가 중반을 넘어서야 속도감이 붙는다. 역시 디아스포라적인 삶의 실체를 그린 작품이다.

재미 동포문학은 이처럼 한국 작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풍성

한 정보와 소재들이 지천으로 널린 곳에서 형성되고 있다. 얼마나 부럽고 기대할 만한 문학적 보물창고인가. 이를 모다 미학적인 세련미로 담아내는 일에 그 미래가 달렸다 하겠다.

2. 수필 / 관찰과 명상

1) 여인을 관찰하는 능력 기르기

수필은 관찰과 명상의 산물이다. 연암 박지원은 “벌레 수염과 꽃잎 사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글을 지을 만한 생각이 결핍되었다는 말이다”(〈鍾北小選 自序〉)고 했다. 어디 그 뿐이라. 세상만사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생각 모두가 문학의 대상이다. 그렇다고 존재하는 모든 걸 그대로 옮기는 게 문학은 아니다. 박지원은 문학예술의 관찰력을 이렇게 요약한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것으로써 시(문학)를 알게 된다. 그가 고개를 숙인 데서 부끄러워 하는 것을 보고, 턱을 꺾은 데서 원한이 있는 것을 보고, 혼자 서 있는 데서 무슨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눈썹을 찡그린 데서 무슨 근심에 싸인 것을 보고, 난간 아래 서 있는 데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을 본다. 만약에 그녀에게 재 올리는 스님처럼 서지 않았거나 조각처럼 앉지 않는다고 책망한다면 그것은 양귀비더러

이를 앓는다고 꾸짖고, 번희(樊姬, 중국 고대 미녀)에게 쪽을 찌지 말라거나, 미인의 걸음걸이를 알망스럽다고 홍보고 춤추는 가락을 경망하다고 나무라는 격이다.”(《菱洋詩集序》).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서 주관적인 견해를 쓰는 것이 곧 문학(수필)임을 뜻함이 연암 박지원의 미학 이론이다. 말을 뒤집으면 여인을 관찰하는 능력만 있으면 산문은 쓸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시나 소설에 비하여 유독 ‘나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수필인 지라 연암의 이 말은 두고두고 되새길 만하다.

『미주문학』 2007년 겨울호의 수필을 읽으면서 느낀 첫 소감은 모국의 수필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한 화제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충족감이다. 연암의 주장대로라면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양각색의 인간들이 펼치는 휴먼 드라마를 다루는 게 수필인지라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많겠는가 마는 요즘 한국 수필은 노쇠한 데다 화두는 자연 예찬이나 가족 친지들의 근황 타령 아니면 여행기를 맴돌고 있어 지극히 따분하다. 이런데 비하면 미주동포의 수필세계는 다이내믹한 화제에다 삶의 현장감이 물씬 풍겨서 활력을 느끼게 한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작가들의 풍성한 경험과 생활반경의 넓음, 축적된 교양미 등이 어우러진 면이 도드라져 독자들을 흡입한다는 긍정적인 요인과는 대조적으로 구성력과 표현력, 문장 수사학 같은 디테일한 미학적인 분야에서는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수필문학은 괄목할 만한 경지에 이르렀다. 어느새 모국을 그리워하는 향수나 어린 시절 추억담에서 벗어나 현지의 삶을 주체적으로 다루는 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 궁상스러운 고향에 대한 애뜻한 향수나 선진국에 산다는 우월감으로 모국을 비판하는 글들(그렇다고 전적으로 가치 없다거나 그

의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에서 탈피하여 ‘자기 존재의 주체적인 인식의 단계로 접어든 재미수필의 현 단계는 이제 오늘의 한국수필을 향하여 시선을 넓히라고 소리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가운 일이다.

2) 미국적 삶의 아시아적 반영

강치범의 「배심원 불루」는 지금 한국에서는 시험단계에 있는 배심원 재판제도의 허실의 뒷이야기를 작가 자신의 경험담으로 진솔하게 풀어낸 시사성과 흥미가 결합된 글이다. 미국 영화에서 흔히 봐서 선진적이고 공정하며 민주적으로 보이는 배심제도의 뒷면에 시민들 개 개인의 이런 자질구레한 속사정이 있음을 한국인으로서 상상하기 어렵다.

“배심원 호출장이 나왔다. 배심원 봉사가 시민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리 반갑지는 않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이다.”는 서두부터 사회문화 체질이 다른 한국과 미국의 독자들의 반응은 엇갈릴 것이다. 미국 독자들은 너무나 뻔한 상식이지만 한국 독자들에게는 ‘어, 나도 그런 것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땡전 한푼 주지 않고 사형집행인을 모집하면 지원자가 줄을 설 거라고 카뮈는 프랑스인들의 호기심을 비판 했는데, 한국인도 예외가 아닌데다 아직 배심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처지일 것이다.

미국 범죄영화에서 우아하게 법정에 앉아 재판을 경청하는 소수의 배심원들의 모습이 이 글을 보니 그 자리에 앉기까지 겪어야 할 과정이 여간 아님을 알게 된다. 작가는 호출된 예비 배심원 3백여 명 속에 끼어서 오히려 선발되지 않기를 기다리는데 불행하게도 36명 호

출에 끼어 지정된 법정에 들어간다. 피고는 흑인 청년이고 변호사는 사오십대 흑인 남자, 검사는 백인 여성이다. 여기서 작가는 수필가적인 직관력과 인생론을 삽입시킨다.

“그녀에게는 부드럽고 우아한 인생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왜 그녀는 딱딱하고 험난한 검사의 길을 택했을까. 무거운 법정 분위기가 그녀로 인해 부드럽게 느껴졌다.”

이런 구절이 없으면 이 글은 한낱 수기로 전락할 것이다.

36명 중 15명(3명은 예비)이 뽑힐 순간이다. 판사는 심리 내용이 마약관련 사건이라 밝히고 부적격이라 여기는 시민들의 하소연을 듣는다. 이 대목에서 작가는 또 기지를 발휘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심원단에서 빠져 나가려고 마치 미꾸라지처럼 굴 때, 드물긴 해도 월급이 보장된 직장인이나 은퇴한 사람은 잉어나 붕어처럼 여유로워 보였다. 배심원에게 지급되는 일당은 십오불이다.”

배심원 구성도 못한 채 퇴근시간이 되어 이튿날 다시 법정으로 나간 작가는 영어부족과 의사로 급한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엄살을 떨었으나 판사는 “그런 이유라면 의사들은 평생 배심원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일침, 결국 그토록 피하려던 16명에 뽑히게 된다. 그런데 변호사가 비토권을 행사, 작가는 탈락당해 나오는데 판사가 “탈락을 너무 섭섭히 여기지 마시오”라고 위로의 말을 보낸다. 그러자 작가는 혼잣말로 응대한다.

“죄인이시여, 알고 보니 내가 당신의 붕이로소이다.”

바로 끝구절이다.

재미있게 읽은 작품이다.

김우영의 「여보, 눈물 가지고 가야 해!」는 노안이라 인조눈물을 수

시로 넣어야 하는 처지에서 ‘눈물’의 의미를 천착한 깔끔하고 사유의 깊이가 감지되는 격조 있는 작품이다. 노안에 그런 처지를 당한 사람은 많지만 막상 이런 소재로 글을 쓰자면 세월타령으로 그치기 마련인데 이 작가는 상투적인 구성을 벗어나 ‘눈물의 철학’으로 화두를 잡아 나간다.

“헌데 노인이 되면 그 동안 흘린 눈물이 많았기에 눈이 건조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는 구절은 엉뚱한 게 아니라 기발한 발상이다. 이런 게 바로 문학적인 상상력이다. 이어 작가는 “무슨 그런 조화가 있을까. 눈물이 나면 눈이 맑아져 앞이 잘 보인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직접 겪은 사실을 적시한 뒤 “세상을 좀 더 밝고 환하게 보고 싶으면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는 구절에 이르면 실로 감동이 일어난다.

그러니 결론은 “눈물은 눈물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다. 내 눈이 자꾸 건조해지는 건 노안이라서 눈물샘이 막힌 것이 아니라, 가슴 샘이 닫혔기 때문일까”로 귀착된다.

참 깔끔한 작품이다. 이만하면 한국의 원로 수필가로서 손색이 없다. 이 두 작가의 글은 미국적 삶 속에서 아시아적 사유를 반추하는 작품을 지니고 있다.

성영라의 「따뜻한 한끼의 밥상」은 교통사고를 당해 집에 외로이 있어야 하는 미국계 친구를 문병한 체험담이다. 그런 정도의 일이야 한다반사(恒茶飯事)라 그냥 흘려버리기 쉬운 자질구레한 소재인데도 시선을 끄는 것은 작가가 외로운 그 환자의 심리를 깊숙이 관찰했기 때문이다. 사고로 인한 아픔보다 더 못 견딘 것은 외로움이었고, 그게 어린 시절 내내 쌓인 것이라는 것, 그걸 풀어줄 수 있었던 건 “따뜻한 식사”였다는 걸 간파한 작가의 혜안이 돋보이는 글이다.

이상옥의 「아리조나주 지름길 89번」은 미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일가가 모처럼 모여 즐긴 여행 추억담이고, 지희선의 「서른세 개의 추모석과 서른 두 개의 하얀 풍선」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끔찍한 “버지니아텍의 총기난사 사건”의 후일담이며, 최미자의 「타오르는 불꽃」은 남가주지역의 빈번한 화재사건 체험담이다.

미주지역의 다양한 삶의 양상이 이렇게 수필작품으로 펼쳐진다는 자체가 우리 문학의 풍요성을 반증해주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3) 모국 체험과 미국적 삶의 조화

미주지역 이민 1세대들이 겪었던 고난의 상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 물론 여전히 고통스런 우리 교민들의 삶의 가시밭길이 없지 않지만 그 양상은 사뭇 달라졌고 이에 따라 문학 역시 변했다. 조국의 찢든 가난에 가슴 아파하던 글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김태영의 「미국 촌사람 금강산에 가다」는 제목이 미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미국 촌사람”이라니! 여기에는 변모한 모국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타국살이 10년 만에 87세 된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로 금강산 여행을 다녀온 작가의 방북기가 바로 이 글이다. 아름다운 금강산의 경관과는 달리 답답한 분단의 현장을 본 작가의 심경을 더욱 부채질 한 것은 미국으로 귀국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북한 방문자라 당했던 까다로운 짐 검열이었음을 밝혀 주는 장면에서 약소분단국민의 서글픔이 배어난다.

박봉진의 「아카시아」는 아카시아 원산지인 먼 이국땅 미주에서 드물게 보는 아카시아에 얹힌 추억을 매개로 향수를 달랜다. 아카시아를 통한 풍광과 자연 현상, 거기에 얹힌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작가의

넉넉한 교양미를 느끼게 한다.

배희경의 「얼굴이 있었다」는 “여자는 얼굴에 생명을 건다”는 첫 구절이 암시하듯이 얼굴에 얹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뤘고, 정순옥의 「갈퀴나무」는 갈퀴나무를 사랑하는 한 아름다운 가을여자를 회억하는 글이다.

미주 수필가들의 글을 읽는 즐거움은 곧 우리 시대의 가장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문학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듯한 즐거움이기도 하다. 그 즐거움이 더욱 깊어지기를.